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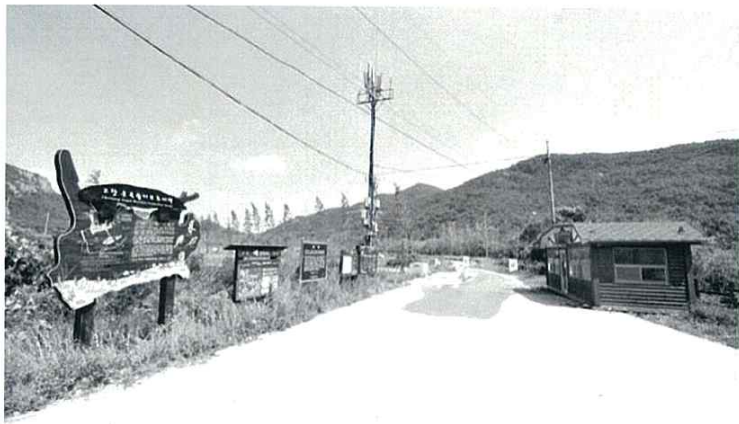
운곡습지 일원 지중화사업 '본격'

고창군, 사람·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생태관광지역 추진 만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자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운곡습지 일원에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15억 6000만원(한전, 통신업체 분담금 포함)을 투입하여 현재 조성 중인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부터 운곡서원까지 3.4km 구간에 걸쳐 한전주 72개, 통신주 98개 등 총 170여개의 지장전주에 대해 전선 지중화사업을 올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총 864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남한의 DMZ라 불리는 운곡습지 일원의 지중화사업을 통해 습지경관개선은 물론 운곡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한 이미지 제고 및 생태관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자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운곡습지 일원에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지역으로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명품자연생태환경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운곡람사르습지, 고창갯벌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동림저수지,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동시에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갈 방침이다. /고창=조종욱 기자

운곡습지 전선 지중화

고창군, 15억여 들여 본격 추진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자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운곡습지 일원에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15억6000만원(한전, 통신업체 분담금 포함)을 투입하여 현재 조성 중인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부터 운곡서원까지 3.4km 구간에 걸쳐 한전주 72개, 통신주 98개 등 총 170여 개의 지장전주에 대해 전선 지중화사업을 올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총 864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남한의 DMZ라 불리는 운곡습지 일원의 지중화사업을 통해 습지경관개선은 물론 운곡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한 이미지 제고 및 생태관광지역으로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명품자연생태환경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운곡람사르습지, 고창갯벌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동립저수지,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동시에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창=김성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2016/09/02 금요일
009면 지역

고창군 운곡습지 3.4km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이자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운곡습지 일원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15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조성 중인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부터 운곡서원까지 3.4km 구간이다.

군과 한전은 이를 위해 한전주 72개, 통신주 98개 등 총 170여개의 지장전주를 철거하고 올 11월까지 구간에 대한 전선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864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이곳 운곡습지 일원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통해 습지경관을 개선하고 운곡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겠다”며 “이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명품자연생태환경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고창군, 운곡습지 일원 전선 지중화사업 본격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자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운곡습지 일원에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1일 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15억6000만원(한전, 통신업체 부담금 포함)을 투입하여 현재 조성 중인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부터 운곡서원까지 3.4km 구간에 걸쳐 한전주 72개, 통신주 98개 등 총 170여개의 지장전주에 대해 전선 지중화사업을 올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총 864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남한의 DMZ라 불리는 운곡습지 일원의 지중화사업을 통해 습지경관개선은 물론 운곡습지

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한 이미지 제고 및 생태관광지역으로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명품자연생태환경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운곡람사르습지, 고창갯벌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동림저수지,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동시에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갈 방침이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고창, 청정자연도시 발돋움

국가생태관광지역 운곡습지 일원 '전선 지중화사업' 본격화... 11월 완료계획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자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운곡습지 일원에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15억6,000만원(한전, 통신업체 분담금 포함)을 투입해 현재 조성 중인 운곡습지 친환경 경주차장부터 운곡서원까지 3.4km 구간에 걸쳐 한전주 72개, 통신주 98개 등 총 170여개의 지장전주에 대해 전선 지중화사업을 올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총 864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남한의 DMZ라 불리는 운곡습지 일원의 지중화사업을 통해 습지경관개선은 물론 운곡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한 이미지 제고 및 생태관광 지역으로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명품자연생태환경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운곡람사르습지, 고창갯벌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동립저수지,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동시에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관광객을 유치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갈 방침이다.

신익희기자
/syhee5311@hanmail.net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자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운곡습지 일원에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창군, 운곡습지 일원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한국전력공사와 공동 총사업비 15억6000만원 투입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자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운곡습지 일원에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15억6000만원(한전, 통신업체 부담금 포함)을 투입하여 현재 조성 중인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부터 운곡서원까지 3.4km 구간에 걸쳐 한전주 72개, 통신주 98개 등 총 170여개의 지장전주에

대해 전선 지중화사업을 올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총 864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남한의 DMZ라 불리는 운곡습지 일원의 지중화사업을 통해 습지경관개선은 물론

운곡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한 이미

지 제고 및 생태관광지역으로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명품자연생태환경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운곡탐사르습지, 고창갯벌탐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동림저수지,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동시에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것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운곡습지 일원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고창군, 친환경주차장~운곡서원... 11월 완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자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운곡습지 일원에 고창군이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15억6000만원(한전, 통신업체 부담금 포함)을 투입해 현재 조성 중인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부터 운곡서원까지 3.4km 구간에 걸쳐 한전주 72개, 통신주 98개 등 총 170여개의 지장전주에 대해 전선 지중화사업을 올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총 864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남한의 DMZ라 불리는 운

곡습지 일원의 지중화사업을 통해 습지 경관개선은 물론 운곡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운곡 랍사르 습지, 고창갯벌 랍사르 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동림 저수지,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동시에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관광객을 유치,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갈 방침이다.

/고창=김태원 기자

2016년 09월 02일 금요일
010면 지역

고창, 전선 지중화사업 본격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자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운곡습지 일원에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15억 6,000만원(한전, 통신업체 분담금 포함)을 투입하여 현재 조성 중인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부터 운곡서원까지 3.4km 구간에 걸쳐 한전주 72개, 통신주 98개 등 총 170여개의 지장전주에 대해 전선 지중화사업을 올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고창=김종성 기자 · kjs56730@daum.net



전국 > 전북

"고창 운곡습지 전봇대 사라진다"...지중화사업 추진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2016-09-01 16:17:50 송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R·biosphere reserve)의 핵심지역이자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전북 고창군 운곡습지 일원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추진된다. 고창 운곡습지 주차장 부근에 설치된 전신주 ©News1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R·biosphere reserve)의 핵심지역이자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전북 고창군 운곡습지 일원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추진된다.

1일 군에 따르면 군비 9억1500만원 등 총사업비 15억6000만원(한전·통신업체 부담금)을 들여 현재 조성 중인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부터 운곡서원까지 3.4 km 구간에 대해 올 11월까지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

이 구간에는 한전주 72개, 통신주 98개 등 총 170여개의 전주가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한 이미지 제고 및 생태관광지역으로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명품자연생태환경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총 864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남한의 DMZ라 불리는 운곡습지 일원의 지중화사업을 통해 습지 경관개선은 물론 운곡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운곡람사르습지, 고창갯벌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동림저수지,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

[지역] 고창군, 운곡습지 일원 전선 지중화사업 본격화

기사입력 2016.09.01 20:49 최종수정 2016.09.01 20:49



고창군 운곡습지

"명실상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자연생태도시 박차"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자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운곡습지 일원에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15억6000만원(한전, 통신업체 분담금 포함)을 투입하여 현재 조성 중인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부터 운곡서원까지 3.4km 구간에 걸쳐 한전주 72개, 통신주 98개 등 총 170여개의 지장전주에 대해 전선 지중화사업을 올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총 864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남한의 DMZ라 불리는 운곡습지 일원의 지중화사업을 통해 습지경관개선은 물론운곡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한 이미지 제고 및 생태관광지역으로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명품자연생태환경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운곡람사르습지, 고창갯벌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동림저수지,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동시에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갈 방침이다.

고창군, 운곡습지 일원 전선 지중화사업 본격화

청정자연생태도시 박차

등록 : 2016-09-01 10:12 수정 : 2016-09-01 10:12



(고창=포커스뉴스) 전북 고창군이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운곡습지 일원에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제공=고창군>

(고창=포커스뉴스) 전북 고창군이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운곡습지 일원에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15억6000만원(한전, 통신업체 부담금 포함)을 투입해 현재 조성 중인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부터 운곡서원까지 3.4km 구간에 대한 전선 지중화사업을 올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남한의 DMZ라 불리는 운곡습지 일원의 지중화사업을 통해 습지경관개선은 물론 운곡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향후 운곡람사르습지, 고창갯벌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동림저수지 등 고창군생태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갈 방침이다.

박윤근 기자 bule2737@focus.kr

고창, 전선 지중화사업 ‘박차’

군,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
운곡서원 3.4km 구간 170개
지장전주... 11월 완료 예정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자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운곡습지 일원에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1일 군은 총 사업비 15억 6,000만원(한전, 통신업체 부담금 포함)을 투입해 현재 조성 중인 운곡

습지 친환경주차장부터 운곡서원까지 3.4km 구간에 걸쳐 한전주 72개, 통신주 98개 등 총 170여 개의 지장전주에 대한 전선 지중화사업을 오는 1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총 864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남한의 DMZ라 불리는 운곡습지 일원의 지중화사업을 통해 습지경관개선은 물론 운곡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한 이미지 제

고 및 생태관광지역으로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명품자연생태환경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군은 앞으로도 운곡람사르습지, 고창갯벌람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동립저수지,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동시에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관광객을 유치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갈 방침이다.

/박동현 기자